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경영(中)

■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경영 사례

선진외국에서는 지금 그린투어리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그린투어리즘이 정착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오스트리아,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편집자 주>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농촌지역 관광사업은 도시관광회사와 지역숙박업자, 농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독일어로 “농가에 손님을 모십니다 (Beim Bauern Zu Gast),” 또는 “농가에서 휴가를 (Urlaub auf dem Bauernhof)”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가는 25만호이며, 이 중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하는 농가는 약 1만 7천호로 전체 농가의 7%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관광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

는 농가는 약 4천호

이며, 참여농가 1만 7천호의 23.5%, 농가 그린투어리즘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연간 150~200만명, 1995년도 이용객은 150만명, 1998년도 이용객은 210만명으로 관광객의 연간 총 체류일수는 1998년도에 1천5백만일로 1인당 7.4일 체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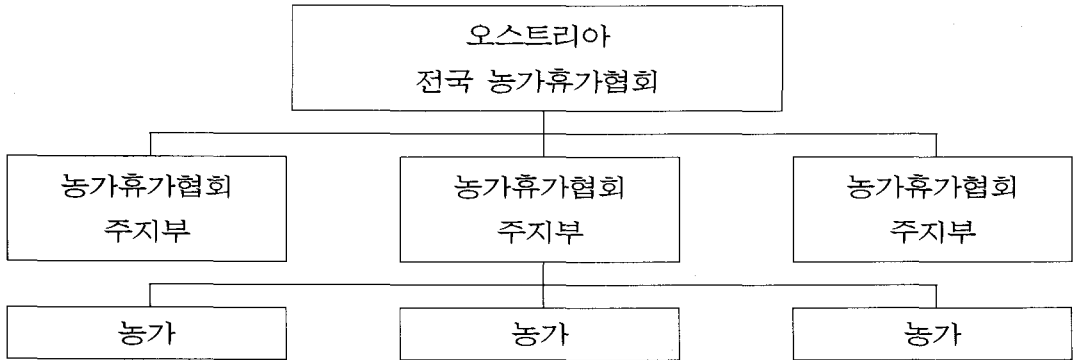
농가의 그린투어리즘은 1960~70년대 개인주택이나 축사 등 농가의 일부를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시작, 오늘날에는 전문적으로 별채형 아파트먼트(콘도)를 갖춘 곳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곳의 농가는 한국에 비해 내부면적이 넓고 소규모 호텔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가 그린투어리즘의 조직화

오스트리아의 농가는 농가휴가협회 (Farm Holiday Association)를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농가휴가협회는 행정단위별로 조직되어 전국 단일계통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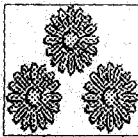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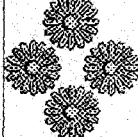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농가와 전국농가휴가협회의 구성>



그린투어리즘 농가는 농가휴가협회를 통해 숙박객을 알선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경영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 농가휴가협회는 농가를 대표하여 도시관광업자들에게 농가 그린투어리즘 상품을 판촉하고, 회원 농가에 대해서는 그린투어리즘 서비스의 품질

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그린투어리즘 농가는 서비스의 구색과 품질, 농장의 아름다움, 가구의 구비수준에 따라 데이지꽃의 개수(2~4개)로 3등급 구분하고 있다.(우리나라 호텔 등급을 무궁화꽃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다.)

<오스트리아 그린투어리즘 농가의 등급 구분>

등급 표시	요건
	자기 집처럼 아늑한 방이며, 가구가 있고, 같은 층에 샤워 또는 목욕 /수세식 화장실, 위생시설이 있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잘 정비된 농가주택이며, 샤워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방과 콘도형 독채를 제공하고, 자기 집처럼 안락한 농장을 갖추고 있는 곳
	각종 현대적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훌륭한 숙박시설로 샤워시설과 목욕시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방과 콘도형 독채를 제공하며 손님들에게 농장휴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곳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유형은 주유(周遊)형과 체류(滯留)형으로 구분되며, 체류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유형 그린투어리즘은 농가가 레스토랑과 파머스 마켓(농가마켓), 파머스 숍(농가가게)을 운영하는 형태이고, 체류형 그린투어리즘은 농가가 민박과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체류기간 동안 숙박 관광객에게 레스토랑과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파머스 숍(Farmers' Shop)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 규모는 침대수 상한선(25

개)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침상수 25개를 초과하면 농가가 아니라 관광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상한선 이하의 농가에게는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상한선을 초과한 농가에게는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린투어리즘의 경영주체는 농가의 부인이며, 부인은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농사일은 남편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부인은 아침(6시)부터 오후(4시)까지 전적으로 민박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유제품과 주류 등 농가 특산물을 가공생산하며, 현지조사 대상농가(A씨 댁)는 부인이 만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남편이 직접 들고 나가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인근 호텔과 편의점에 계속 납품하고 있다.



▲ B씨 농가의 전경 (왼편 건물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농가이고 오른쪽 건물은 축사)

그린투어리즘 농가의 민박경영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많으며, 민박소득 중 일부를 민박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상농가(B씨 댁)의 민박조수입은 한달에 약 4만5천 오스트리아실링(Ats)으로, 농업소득(1만5천실링)의 3배 정도가 되고 B씨 댁의 부인은 민박소득의 1/3을 편의시설의 수리, 꽃 심기 등 집단장에 반드시 재투자하며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가는 경영내용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협회와도 긴밀한 통보체계를 유지하여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농가는 휴가자 숙박부를 작성



▲B씨 농가의 객실 내부

하고, 대금결제와 동시에 이를 장부에 기록하며, 농가휴가협회에도 수입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 정부의 지원

오스트리아 정부는 관광관련 정부부처와 농업관련 정부부처가 농가의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휴가협회의 운영을 재정지원하고 지역의 농업회소를 통해서도 농가 그린투어리즘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농가휴가협회는 오스트리아 국립관광국(Austri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ANTO) 안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한다.

▶ 농가휴가 관련 세제 및 법률

- 농가민박의 침대수에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농가가 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
- 주정부별로 별도의 규칙을 정한 곳도



▲그린투어리즘 농가의 식당(B씨댁)

있으나, 연방의 농가휴가관련 특별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객실임대법의 특례 조항을 적용.

▶ 민박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 농가가 민박용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 현지 조사대상 농가(B씨 댁)는 1973년 주택을 신축할 때, 25년 장기대출을 받아, 29년이 지난 지금 대출금 1백만 실링을 전액 상환. **한독양행**